

하나로마트 공적물량 마스크 원가 판매

전북농협, 정부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도내 194개점 통해 공급 구매가 개당 830원



전북농협은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공적판매물량을 지난달 29일부터 전북관내 농협하나로마트(194개점)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 하나로마트 직원이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공적판매물량을 지난달 29일부터 전북관내 농협하나로마트(194개점)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농협은 하나로마트에 공급되는 초기물량은 매장별로 1일 300개 내외로 최대한 많은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5매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보급형(KF94) 마스크를 구매 가격인 개당 830원에 원가 판매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농협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해 안정적으로 마스크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내 하나로마트에 공급되는 공적 물량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 하나로마트 위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 및 농협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올 봄 인삼 싹 나오는 시기 예년보다 보름가량 빨라

농진청 "꽃샘추위에 저온 피해 보지 않도록 발 팔리 철저히 해가림 차광 자재 내리고 두둑에 흙 덮어줘야"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일 올봄 인삼의 싹 나오는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 꽃샘추위에 저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발 관리에 당부했다.

농진청은 2월 중순 각 도 농업기술원의 인삼연구소, 인삼농협 등과 함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의 33개 시·군, 94개 인삼 재배지를 대상으로 인삼의 머리(뇌두) 발달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북, 강원, 충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싹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약 11%가 싹이 났고(완전발뇌), 26%는 싹 트기 전 단계(부분발뇌)를 보였다.

전북, 강원 지역은 약 40% 정도가 싹 트기 전 단계를 보였다.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4.7%가 싹 트기 전 단계를 보였고, 완전히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없었다.

이처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는 2월 중순부터 뇌두 발달이 진행돼 평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인삼 싹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삼 싹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러

면 3월 초부터 기상 정보를 확인해 해가림 차광 자재를 내리고 두둑 위에 흙을 덮어줘야 한다.

두둑 겹면에 햇빛이 내리쬐면 싹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싹이 올라오면서 인삼이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란다. 따라서 차광자재를 내리면 땅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내부 온도 변화 차를 줄여 뇌두 부분의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뿌리가 얇게 뭉쳐 인삼이 보이는 곳과 서릿발로 뿌리가 흩어

우로 솟은 경우에는 두둑 위에 흙을 3cm 정도 두께로 덮어 뿌리의 온도와 수분을 유지해줘야 한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지역은 뿌리 부패 등 습기 피해나 이차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둑과 고랑의 물 빠짐을 철저히 관리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운 인삼과장은 "겨우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삼의 싹나는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지역 연구소, 농협과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기상정보를 꼼꼼히 살펴 차광막 설치, 흙덮기, 배수 관리로 봄철 발생 가능한 저온과 습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제주항공, 주식매매계약 체결 합의

최종 인수금액 545억원 내달 29일 최종지분 인계 최종구 사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2일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계약체결에 합의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계약으로 이스타홀딩스 외 주식 497만1,000주 51.17%를 제주항공에 매각하게 되며, 인수금액은 545억원으로 오는 4월 29일 최종 지분을 인계하게 된다.

이번 양사간의 합의는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과 노력에 합의한 결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는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공동경영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은 국내 첫 항공사간 통합으로, 원가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선 확

장과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용 고객들의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구 노력의 일환이다"며 "항공산업도 코로나19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또한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 판매기간 이달 13일까지 연장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입 시기를 농민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은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버섯의 경우 농업인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스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주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80% 보험료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20%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등 67개 품목으로,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전북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